

바이애슬론 '최강' 전남, 동계체전서 최고의 성적 낸다

2월 18일부터 평창서 열려...랍신·김철영·염혜진 등 6명 출전 비시즌에 체력·사격 적응률 향상 집중...체전 한달 앞 훈련 박차

바이애슬론 '최강팀' 전남이 전국동계체전을 약 한 달 앞두고 담금질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대회에서 금메달 6개, 은메달 3개로 총 9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화려한 성과를 낸 전남은 올해도 최고의 성적을 내기 위해 지난해 봄부터 강원도에서 맹훈련 중이다.

제106회 전국동계체전 바이애슬론 경기는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바이애슬론 센터에서 오는 2월 18일부터 열린다.

김상욱 감독이 총 지휘봉을 잡고 있는 전남 바이애슬론팀은 티모페이 랍신, 예카테리나 압바쿠모바, 알렉산더 스타로두비치, 김철영, 염혜진, 함해영으로 구성됐다.

여기에 지난해까지는 코치로서 전남 선수단을 지

도해왔던 이인복, 김미선 감독이 각각 남자일반부와 여자일반부로 선수단을 나눠 맡았다.

새로워진 지도 체계로 더욱 탄탄해진 전남 바이애슬론팀은 지난해 대회에 이어 이번 동계체전에서도 메달 사냥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상욱 감독은 "선수들이 경기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장비부터 기술, 체력까지 모든 면에서 완벽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 중이다"며 "선수들 뿐 아니라 코치진도 최상의 경기를 보여줄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 준비한 만큼 이번에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지난해 대회를 마치고 곧바로 지난 5월부터 강도 높은 훈련을 이어간 전남팀은 올해 대회에서 다시



전남 바이애슬론팀.

한번 최강팀의 면모를 보여줄 준비를 마쳤다.

선수단은 비시즌에는 체력 훈련과 사격에서의 적응을 향상에 집중했고, 지난 12월 말 바이애슬론 경기장 세팅이 완료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스키

훈련을 시작했다.

또 앞서 2년이 간 부상으로 고전했던 함해영의 기량이 향상되면서 전남팀은 이번 대회 개인전에서 깜짝 메달까지 노리고 있다.

김 감독은 "동계체전까지 남은 한 달 동안 선수들 컨디션 맞추면 작년 성적은 나올 것 같다"며 "특히 함해영 선수가 재활을 마치고 기량이 올라왔다. 아킬레스건, 무릎, 허리 디스크 쪽이 안 좋았는데, 그게 좀 회복되면서 이제 좀 파워가 늘어나고 기량이 점점 올라오고 있는 상태. 올해 체전에서는 개인전 메달까지 바라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동계체전 바이애슬론 경기는 2월 18일 혼성 계주를 시작으로 19일 스피리트, 20일 집단출발, 21일 일반부 계주 순으로 펼쳐진다.

최고의 경기를 펼치기 위해 선수단은 스키 장비 하나하나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다.

김 감독은 "장비에 왁스를 먹이고 계속해서 테스트를 하는 것까지가 다 슬로프에 나서기 전 과정에 포함된다. 경기가 치열한 1초 싸움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선수들과 감독 모두 철저하게 준비하며 기량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영암민속씨름단·구례반달곰씨름단, 설날장사 씨름대회 출격

24~30일 태안종합실내체육관

영암군민속씨름단(감독 김기태)과 구례군정반달곰씨름단(감독 김송환)이 충남 태안에서 열리는 설날장사 씨름대회에서 한판 승부를 벌인다.

설 연휴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위더스제약 2025 태안 설날장사 씨름대회'가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태안종합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

대한씨름협회가 주최하고 태안군씨름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지난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태안에서 개최된다.



설 연휴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위더스제약 2025 태안 설날장사 씨름대회'가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태안종합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 지난 2024년 태안에서 치러진 설날대회 모습. <태안군 제공>

설날장사 씨름대회를 앞둔 영암민속씨름단은 지난 15일 출정식을 열고 '100회 우승'이라는 새해 목표를 내걸고 을사년 활약을 다짐했다.

영암민속씨름단 김기태 감독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이 다가온다. 김민재·최정만·차민수 장사를 비롯한 씨름 천재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며 "좋은 성적으로 지역에 기쁨을 드리고 싶다. 전통 문화유산인 씨름에도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린다"고 대회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구례반달곰씨름단 김송환 감독도 "올해 첫 대회인 만큼 부상 없는 대회로 꼭 완주했으면 좋겠다.

열심히 해주는 우리 선수들에게 늘 고맙다. 좋은 성적도 따라와주면 더 기쁠 것 같다"고 2025년 첫 여정을 앞둔 포부를 밝혔다.

전국 최초의 여자씨름단인 구례반달곰씨름단은 2011년 창단 이후 꾸준히 활약하며 각종 씨름대회에서 장사를 배출해 왔다.

한편, 이번 대회 8강부터 장사 결정전 경기는 KBS1과 KBSN 스포츠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되며, 자세한 내용은 대한씨름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하얼빈 동계 AG 선수단장에 최홍훈 스키·스노보드협회장

24일 결단식

다음 달 7일 개막하는 제9회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선수단을 이끌 단장에 최홍훈(62·사진) 선임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장이 선임됐다.

21일 대한체육회와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에 따르면 최홍훈 스키·스노보드협회장이 선수단을 이끌게 됐다.

최홍훈 단장은 최근 제25대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해 협회장에 당선된 직후 동계 아시안게임 선수단 총괄책임자라는 중책을 맡게 됐다.

최 단장은 1989년 호텐롯데에 입사해 롯데월드 영업본부장을 거쳐 지난해까지 롯데월드 대표이



사를 역임했다.

그는 협회장 취임 소감에서 "하얼빈 동계 아시안 게임과 2026년 밀라노·코르티나동계 올림픽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좋은 성과를 내도록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스키·스노보드협회는 2014년 11월 신동민 롯데그룹 회장이 협회장을 맡은 이후 롯데그룹이 회장 사 역할을 하고 있다.

롯데그룹 지원 아래 한국 스키는 2016년 릴레함

메르 동계 유스올림픽 금메달, 2017년 삿포로 동계 아시안게임 역대 최고 성적,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사상 첫 스키 종목 메달 획득 등의 성과를 냈다.

최홍훈 선임 단장과 함께 선수단은 본부 임원 22명과 지원단 5명 등 구성을 마쳤다.

선수단은 24일 오후 3시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 1층 올림피아홀에서 열리는 결단식을 갖는다.

9회째를 맞는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은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에서 2월 7일부터 14일까지 열린다.

한국은 이번 하얼빈 대회에 빙상, 스키, 바이애슬론, 컬링, 아이스하키, 산악스키 6개 전 종목에 200여명의 선수단을 파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피겨 차준환, IOC 선수위원에 도전장 "유승민 회장과 대화하며 꿈 키워"…봄슬레이 원윤종과 경쟁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에 도전장을 낸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 간판 차준환(고려대·사진)은 IOC 선수위원으로 활동했던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당선인을 통해 꿈을 키우게 됐다

차준환은 21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유치 대표단 활동 당시 스위스 로잔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 당시 준비과정에서 유승민 전 위원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때부터 조금씩(선수위원) 꿈을 가지게 됐고, 마침 도전 기회가 생겨서 지원을 결심했다. 도전 자체가 내겐 큰 영광"이라며 "부족하지만,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일단 한국 후보로 선정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차준환은 지난 13일 대한빙상경기연맹을 통해 대한체육회에 IOC 선수위원 출마 신청서를 제출했다.

선수위원은 전 세계 선수들이 직접 뽑는 IOC 위원으로 임기는 8년이다. 일반 IOC 위원과 똑같은 대우를 받으며 선수의 목소리를 IOC에서 대변한다.

역대 한국 출신 IOC 선수위원은 태권도 문대성, 탁구 유승민 2명이며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당선인의 임기는 2024 파리 올림픽 때 종료됐다.

IOC 선수위원 선거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동계 올림픽 기간에 열리고, 2명 혹은 3명의 위원을 뽑는 것으로 알려졌다.

IOC 선수위원으로 당선되기 위해선 선거 직전 동계올림픽에 참가했거나 선거가 있는 올림픽에 출전해야 하고 IOC 공식 언어인 영어 또는 불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유창한 영어 실력을 뽐내는 차준환은 "해외(캐나다)에서 오랜 기간 훈련했다. 조금은 원활하게(영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며 "IOC와 선수들의 연결 다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체육회는 조만간 한국 선수위원 선발 과정을 밝힐 예정이다.

서류 심사와 면접 등의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후보 선발은 차준환과 봄슬레이 원윤종의 2파전으로 열린다.

원윤종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때 4인승 은메달 획득을 이끈 한국 썰매의 간판이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도 출전했다.

차준환은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열린 2025 토리노 동계세계대학경기대회(유니버시아드)에서 동메달을 따고서 귀국했다.

향후 일정은 백백하다. 그는 곧바로 다음 달에 열리는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에 출전한다.

아시안게임 후엔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빙상경기연맹(ISU) 4대륙 선수권대회에 나서고, 3월엔 2026 밀라노·코르티나동계 올림픽 국가별 쿼터가 걸린 ISU 세계선수권대회에 나선다.

대회 준비를 하면서 IOC 선수위원 국내 선발 경쟁도 치러야 한다.

/연합뉴스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GAC 공모전시 환희 : 양홍길 개인전

일시 : 2025-1-15(수) ~ 2025-2-16(일)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광주시립교향악단 체임버 시리즈 I 'Cello Moments'

일시 : 2025-02-21(금) 19:30
장소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2
문의 : 062-613-8241